

새 학기의 시작과 더불어 게임판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 RPG의 오픈 베타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기본적인 구도는 당초 대작 3인방으로 불리던 웹젠의 <썬>이 예상보다 오픈 베타 서비스 일정이 늦추어지는 바람에 한빛소프트의 <그라나도 에스파다>와 넥슨의 <제라>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양상이다. 이 두 게임은 이미 김학규 프리미엄으로 개발 초기부터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점과 캐주얼게임의 지존 넥슨에서 최초로 개발한 정통 성인RPG라는 점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게임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리니지 도용사태' 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피해규모가 급증하며 엔씨소프트 및 게임·IT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명의도용의 원인이 되었던 <리니지> 게임은 사회적 파장과는 무관하리만큼 게임사용량의 큰 변화 없이 여전히 막강한 위세(?)를 떨치고 있다. 이번 명의도용 사태가 엔씨소프트에겐 악재로 작용했지만, 리니지 게임에는 전국적 홍보를 할 수 있었던 호재로 작용했다. 개학과 더불어 전체 게임사용량이 소폭 하락했던 2월! 그럼 지금부터 2월 한달 간 게임동향을 살펴봤다.

자료: 게임트릭스

[게임 장르별 기상도]

조사기간: 2006년 1월 23일~2월 22일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게임사용량을 보이고 있는 1위부터 5위까지 게임 순위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게임 순위 이외 게임사용시간과 점유율을 살펴보면 최상위 게임들 가운데도 작은 변화가 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스페셜포스

는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에 있어서는 다소 쇠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 동기 대비 2% 이상 점유율이 하락한 스페셜포스는 전성기 시절 점유율이 20%를 상회하던 것에 비하면 최근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FPS장르에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서든어택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게임 순위 4위와 5위에 나란히 랭크되어 있는 리니지 1, 2는 명의 도용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새로운 RPG장르의 개혁

2월 한달동안 순위가 상승한 게임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급상승이 눈에 띄었다. 2월 14일, 오픈 베타 서비스 시작 후 무려 72계단이 상승한 그라나도 에스파다는 초기 불안정한 서버로 인해 다소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점차 안정적인 운영을 보이며 유저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RPG에서 처음 시도된 'MCC'라는 새로운 개념은 복수의 캐릭터 조합으로 RTS 장르와 같은 전략적 게임 운영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신선한 재미를 주고 있다.

이 같은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급상승은 <월드오브 워크래프트>나 <로한>의 오픈 베타 직후 성과와 비견되는 것으로 향후 RPG장르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FPS장르에서는 서든어택의 급상승이 주목 받았다. 서든어택은 지난 달 대비 3계단 뛰어오르며 10위권 진입에 성공했다.

그러나 단순 순위의 상승보다는 내실 있는 점유율 상승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점유율 4.64%를 기록한 서든어택은 지난달 동기 대비 1.5% 상승하였으며 최근 3개월간 무려 3% 이상 점유율이 상승했다. 이 같은 서든어택의 선전은 동일 장르 스페셜포스의 점유율 하락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치열한 접전, RPG의 수난!

2월 들어 순위가 하락한 게임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RPG장르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물론 상위 25위권 내 랭크된 게임들 중 RPG 장르의 점유율이 50% 가까이 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2월 들어 대작 RPG들의 오픈 베타 서비스가 시

신뢰도 95% 오차율 4.71%

순위	장르	게임 타이틀	점유율 (%)	평균 총 사용시간 (시간)	PC방당 사용시간 (분)	평균 체류시간 (분)	
1	-	FPS	스페셜포스	15.92%	858,158	2962	49
2	-	RTS	스타크래프트	11.59%	624,661	1806	55
3	-	레이싱	카트라이더	7.15%	385,569	1287	41
4	-	RPG	리니지	6.60%	355,846	1242	91
5	-	RPG	리니지2	6.04%	325,765	1155	111
6	-	RPG	월드오브워크래프트	4.71%	253,753	1077	114
7	▲3	FPS	서든어택	4.64%	250,267	897	46
8	▼1	RTS	워크래프트3	4.07%	219,088	964	70
9	-	스포츠	프리스타일	3.51%	189,387	925	51
10	▼2	RPG	로한	3.08%	165,810	828	114
11	-	고스톱	한게임 신맛고	2.02%	109,045	415	24
12	-	RPG	메이플 스토리	1.98%	106,836	460	53
13	▲3	RPG	던전앤파이터	1.50%	80,884	423	65
14	-	RPG	열혈강호	1.36%	73,049	475	71
15	▼2	FPS	워록	1.28%	69,026	316	60
16	▼1	RPG	뮤	1.15%	62,003	394	72
17	▲72	RPG	그라나도 에스파다	1.09%	58,942	506	62
18	▲6	아케이드	갯앰프드	1.05%	56,757	310	48
19	▲1	FPS	건즈 온라인	1.00%	53,901	383	44
20	▼1	아케이드	알투비트	0.97%	52,305	321	29

작되었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신규 게임의 출시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 때 7% 가까이 점유율을 기록하며 리니지와 월드오브 워크래프트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로한은 최근 3%대까지 점유율이 하락하며 10위에 턱걸이 하였다.

이 같은 로한의 부진은 캐릭터간 밸런스의 불균형, 아이템 드롭율 조정 실패와 같은 게임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

만, 최근 대작 RPG들의 오픈 베타 서비스 시작과 3월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시기적 요인이 미리 반영되면서 유저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 동일RPG장르에서 유저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온 <데카론>, <카발 온라인>, <영웅 온라인> 등 RPG 게임들도 후폭풍을 맞으며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